

세계 식품가격 변동추이와 미래 전망

이철호 이사장/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 국내외 식품가격 변동 추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식품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FAO가 월별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세계 식품가격지수는 2002/04를 100으로 했을 때 2011년 이후 200선을 넘어 240에 이르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것은 2007/08연도의 세계 곡물과동시 보다 더 높은 값이며 이와 같은 식품가격 폭등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활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져 세계적인 식량과동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에 힘입은 것으로, 한편으로는 농수축산 업계와 식품제조업,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2011년 기간 동안 대두 국제가격이 톤당 364달러에서 513달러로 40.9% 올랐는데 이를 원료로 생산한 대두유 가격은 3.9% 증가에 그쳤다. 대두유와 마찬가지로 대두만을 써서 만들어 내는 두부 가격은 10.7% 상승했다. 밀의 경우는 톤당 227달러에서 295달러로 30% 증가하고, 설탕의 원료인 원당 가격은 톤당 281달러에서 707달러로 2.5배 상승했다. 팜유는 톤당 695달러에서 1,221달러로 75.7%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을 사용해 제조한 단팥빵 가격은 5% 올랐고, 라면 평균가격은 6.4% 내렸다.

2. 가격상승 요인 분석

최근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의한 식품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면 아래 다섯가지 요인을 거론할 수 있다. (1) 원자재 가격 상승, (2) 가공식품에 대한 역관세 차별, (3) 식품안전관리비용의 증가, (4) 유통비용의 증가, (5) 식품의 저장, 가공, 유통 중 폐기식품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식품은 원료의 가격 구성비가 비교적 높아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제조가공비와 관리비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식품가격은 식품안전 요구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식품안전 수준이 높게 요구될수록 가용한 식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식품안전 요구수준과 식품가격을 조화시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식품이물 의무보고제도에 의한 식품산업 추가비용이 5,36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온화 조사식품의 표시기준 강화에 의해 식품산업이 구입한 분석장비 구입비가 46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장비의 유지 보수비와 조사유무 검지 분석비가 매년 수십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식품의 가공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의 양이 전체 공급 식량의 1/3에 달하는 막대한 식량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직간접으로 식품가격에 반영된다.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식량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식품가격 상승을 일부 막을 수 있다. 가격상승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식량위기 시대에 식품을 아끼고 가격의 급등을 막는 합리적인 가격 조정 정책을 세워야 한다.

3. 세계 식량위기와 식품가격 전망

앞으로 10-20년 내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온난화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식량생산이 감소하고 식품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로 2080년에는 세계 전체 식량생산이 0.6-0.9% 감소하고 특히 남아시아지역에서 18-22% 감소한다는 예측보고서가 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세계의 인구는 70억에서 100억인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식량부족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2020년 옥수수 가격은 26-72% 오르고, 밀은 8-20%, 설탕은 11-27% 가격이 상승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14억인과 인도의 12억 인구가 지금 추세대로 경제성장하여 우리처럼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세계 곡물시장을 싹쓸이해도 그들의 사료곡물 수요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이때에는 돈이 있어도 사울 식량이 없게 된다.

이외에도 세계 곡물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은 도처에 있다. 유가급등에 의한 식량생산 및 수송비 증가, 생명공학 농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식량증산 기술의 정체, 지구촌 교류확대에 의한 가축 전염병의 확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한 곡물시장의 교란, 식량수출국들의 수출제한 등 식품가격을 앙등시킬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4. 식량안보를 위한 가격정책 제언

(1)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점진적인 식품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 세계는 지금 식량 과잉의 시대에서 식량 부족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식품가격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무리하게 억제하였다가 더 견딜 수 없어 폭등하게 해선 안 된다. 점진적인 가격 인상으로 국민이 세계 식량사정의 변화에 준비되도록 해야 하며 식량을 더 생산하고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식품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획일적인 품목별 가격 통제 보다는 품질등급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부자와 가난한자가 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품질고급화로 한국 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쌀의 등급화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신기술에 의한 생산비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 이온화 조사기술로 식량의 수확 후 손실을 막으며 폐기식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생명공학(GM)식품의 소비 확대로 값싼 수입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 진다.

(4) 합리적인 식품안전 기준과 관리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식품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는 관행을 버리고 철저한 위험편익 분석에 근거한 식품안전 기준 설정과 비용효과 분석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와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안전관리 경영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며 식품가격을 고려한 식품안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5) 폐기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교육을 통해 유통기한에 대한 바른 상식을 가르치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게 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통기간 경과 이후 가식기간을 표시하여 반값판매 또는 Food Bank에서 활용하도록 제도화 한다.

(6)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그리고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교육과 성숙한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임을 인식하고 지원 육성하려는 사회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

의 고마움을 아는 건전한 음식문화야말로 앞으로 닥칠 세계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자세이다.

참고문헌

- (1) 이철호; 식량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2) 이철호, 이숙중; 글로벌 식량위기와 한국의 대응방안, 특집 애그플레이션 (agflation)과 식량안보, 식품과학과산업 44(3), 20-37 (2011)
- (3) 이장은, 이철호; 소비자 불매운동이 국가경제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특집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식량안보, 식품과학과산업 44(3), 43-49 (2011)